

- 주요 뉴스: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
 - 미국 재무장관, 중국과의 관세 휴전 연장 시사. 연준 파월 의장에는 이사직 사임 압박
 - 미국,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 타결. 3개의 암호화폐 법안은 하원 통과 실패
 - 중국 2/4분기 GDP 증가율, 예상치 상회. 수출 양호하지만 다플레이션 압력 지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6월 소비자물가 및 은행권 2/4분기 실적 결과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일부 은행의 부진한 실적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건설 및 통신주 약세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징후,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이 원인
독일은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384.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6.6원, 0.46% 상승). 한국 CDS 약보합

		7/15일	7/14일	전일대비			7/15일	7/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43.8	6,268.6	-0.40%	국채 금리 10y	미국	4.48%	4.43%	+5bp
	유럽	544.95	546.99	-0.37%		독일	2.71%	2.73%	-2bp
	중국	3,505.0	3,519.7	-0.42%		영국	4.63%	4.60%	+3bp
	일본	39,678	39,460	+0.55%	CDS 5y	한국	25bp	25bp	-0bp
	한국	3,215.3	3,202.0	+0.41%		중국	47bp	47bp	-0bp
환율	달러지수	98.64	98.08	+0.57%	위험 지표	EMBI+	-	362	-
	유로화	1.1601	1.1664	-0.54%		VIX	17.38	17.20	+1.05%
	엔화	148.88	147.72	-0.78%		WTI유	66.52	66.98	-0.69%
	위안화	7.1825	7.1720	-0.15%	원자재	구리	554.6	551.5	+0.56%
	원화	1,380.2	1,381.2	+0.07%		금	3,324.6	3,343.5	-0.5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

- 6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2.7%로 전월(2.4%) 및 예상치(2.6%) 상회. 월간 상승률은 0.3%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 기록. 한편 근원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9%, 0.2%를 나타내 전월(각각 2.8%, 0.1%)에 비해 올랐으나 예상치(각각 3.0%, 0.3%) 대비 낮은 수준.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은 5개월 연속 예상치 하회
- 세부항목 가운데 식품(+0.3%), 에너지(+1.0%), 주거비(+0.2%) 등이 주요 상승 압력으로 작용. 특히 관세 영향이 큰 품목(가정용 가구, 비디오 및 오디오 제품, 장난감, 가전제품 등)에서 뚜렷한 가격 상승이 발생. 반면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하락했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숙박비(-3.6%)와 항공료(-0.1%)도 전월비 낮은 수준
- 시장에서는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발생했고,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Morgan Stanley). 이에 연준이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디스인플레이션이 9월 이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피력(PIM)
- CME FedWatch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내 2회(9월 및 12월, 각 0.25%p) 금리인하 예상. 다만,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전날 대비 소폭 하락(58.9%→54.4%). 한편, 보스턴 연은 콜린스 총재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인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건전한 재무 구조가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중국과의 관세 휴전 연장 시사. 연준 파월 의장에는 이사직 사임 압박

- 베센트 재무장관은 美中 간 90일 관세 휴전이 8/1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 또한 양국 간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 한편 백악관이 Nvidia의 중국향 H20 GPU 판매 라이선스 승인을 보장했다고 확인하고, 이는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고 설명
- 아울러 베센트 장관은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의장직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직에서도 사임(그렇지 않을 경우 '28년 1월까지 이사직 유임)해야 한다고 압박. 또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첨언. 한편, 차기 유력 의장 후보로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거론

■ 미국,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 타결. 3개의 암호화폐 법안은 하원 통과 실패

-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해 인도네시아産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이는 당초 위협했던 32% 관세에서 대폭 인하된 수준. 인도네시아는 미국産 에너지 수출품, 농산물, 항공기 구매에 합의했고, 미국産 제품에는 관세를 미부과. 한편, 인도와도 유사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3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하원 투표에서 부결. 13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

■ EU·일본, 경쟁력 연합 발족. 美中 관세협상 앞두고 국제 경제 영향력 확대가 목적

- EU와 일본은 경쟁력 연합을 발족하고, 경제안보 및 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격상. 양측은 이를 통해 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경제 질서 유지를 강조할 방침

■ 독일 7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상승. 정부 지출 계획 및 관세 협상 기대 반영

- 7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52.7로 전월(47.5) 대비 상승. 이는 미국과의 신속한 관세 분쟁 해결 기대, 정부의 감세 및 세출 대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에 기인

■ 중국 2/4분기 GDP 증가율, 예상치 상회. 수출 양호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 2/4분기 GDP 성장률(연율)이 5.2%를 기록, 1분기(5.4%) 대비 소폭 떨어졌지만 예상치(5.1%) 상회하며 정부의 연간 목표(5.0%) 달성 기대가 증가. 이는 수출부문의 호조 등에 기인. 하지만 명목 성장률은 3.9%에 그쳐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일각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4.5% 하회할 것으로 전망(Morgan Stanley)

■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선거 앞두고 재정 악화 경계감 반영

- 10년물 국채금리가 1.595%까지 상승해 '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30년물은 3.20%로 사상 최고치 경신. 이는 7/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과반 상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요 야당의 세금 감면 공약에 따른 재정 우려 확산 등이 영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산업생산, 연준 베이지북, 유로존 5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 및 달러화 강세 동시 추진, 현실화 가능성 낮은 편 - 블룸버그

(Is the Dollar's Era of Exorbitant Privilege Ending?)

- 백악관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혜택(낮은 차입비용 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질서(타국에 덜 착취당하는 경제 구조) 구축을 기대. 하지만, 후자는 통상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통해 가능. 이와 같이 상충하는 2개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해 백악관은 관세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결과는 당초 기대와 다른 모습
- 실제로 연초 이후 달러화 약세와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화 자산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 이러한 여건에서 여타 국가들이 겪는 딜레마는 더욱 심각.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미국이 누렸던 많은 특권이 달러화의 우월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

■ 미국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세정책 변경, 무역질서 재편 가능하나 관련 위험도 내재 - WSJ

(Trump Bets Constantly Shifting Tariff Strategy Can Remake Global Trade)

-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교역국이 미국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이 가능.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위험도 내재
-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도전, 높은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의 협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 또한 트럼프의 무역팀 내에서 의견 충돌이 나타나거나 교역국에 일치하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현상도 발생

■ 중국 2/4분기 경제 성장 목표 달성, 디플레이션 대응 여력 확대를 제공 - 블룸버그

(China's Growth Momentum Offers Xi Rare Window to Fight Deflation)

- 2/4분기 GDP 성장률은 5.2%로 목표(5%)와 예상치(5.1%)를 모두 상회. 이에 정부가 양호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가 경기부양책 지연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 의존 경제 정책을 고수하는 잘못된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ANZ). 하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3.9%(32년래 최저)로 디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
- 다만 상반기 GDP 성장률(5.3%)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실질 성장이 둔화되기 전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부여. 정부는 과잉 생산 및 가격 경쟁 억제, 지방정부 지원 제한, 기업합병 장려, 경쟁 규칙 강화 등의 대응이 요구. 아울러 부동산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촉진을 위한 자극책도 필요

■ 미국의 관세 정책, 단순한 무역 수단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변질 - 블룸버그

(US tariffs are no longer just about fixing trade)

- 백악관이 최근 구리와 브라질·한국·일본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위협을 재개. 이에 평균 실효 관세율은 2%에서 17%로 올라 '30년대 이후 최고치. 과거 백악관은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는 논리를 앞세웠으나 이제는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과 기준도 배제하고, 관세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간주
- 일례로 브라질은 對美 무역적자국이지만 前대통령 재판을 막겠다는 정치적 이유로 고율 관세 부과. 이는 명백한 내정개입이며, 무역과 무관한 목적의 관세 남용은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훼손할 소지. 지정학적 갈등은 효과적인 정책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

■ 미국 트럼프의 관세 집착, 후퇴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 경쟁력을 저해 - Financial Times

(A return to tariffs, Taco or not)

■ 미국 베센트의 단기물 중심 국채 발행 계획, 금리 상승 시 리스크 증가할 우려 - 블룸버그

(Bessent's Interest Rate Bet Could Be a Big Loser)

■ 미국 주식 투자자,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위험을 과소평가 - 블룸버그

(Stock Investors Are Pricing in Little Risk of Hot Inflation Report)

■ 영국 경제 낙관론, 기업 신뢰 회복과 정부의 명확한 성장 전략에 기반 - Financial Times

(The strong grounds for optimism for the UK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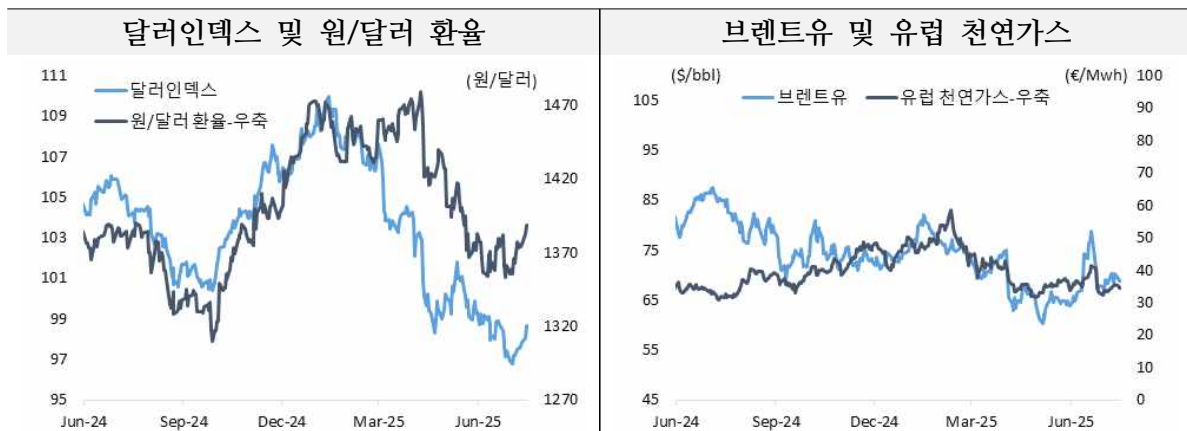
■ 신흥국 주가, 트럼프 관세 우려 재점화·달러화 반등에 상승세 둔화 - Financial Times

(Is the emerging markets party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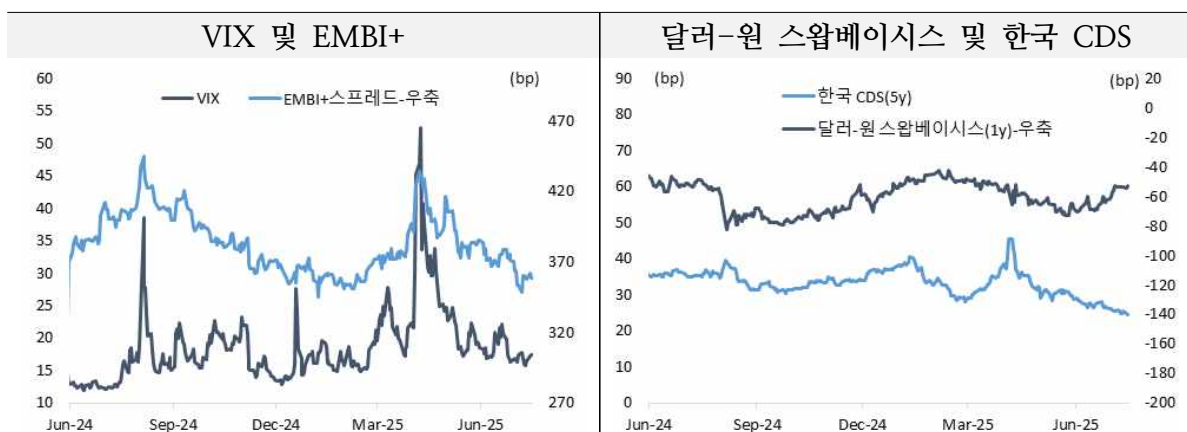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